

지역 소식통

김제시보건소, 국가 암검진 실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2017년 국가 암 미수검자(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국가 암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진은 의료접근성이 적은 읍·면에 신고된 검진기관과 연계한 출장검진이며 오는 7월 19일부터 7월 28일 기간중 이동검진 차량으로 14개 읍·면에서 검진을 실시한다.

미수검자 중 위암 만40세이상, 유방암 만40세이상,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자이며, 대상암 검진은 만50세 이상자로 1년에 1회씩 분변검사(대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검사결과 이상자의 경우 위내시경검진을 병·의원에서 무료로 실시되거나 검진담임에 대변을 대변통에 받아오시고 그 외 건강검진등을 실시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용진읍 부녀회, 반찬나눔 행사

완주군 용진읍 새마을부녀회(연합회장 정정애)가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랑의 반찬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부녀연합회원 30명은 읍사무소 옆 광장에 다함께 모여 이른 아침부터 오이스파와 콩자반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100여 세대에 직접 전달했다.

한편 용진읍 새마을부녀회는 반찬나눔 행사, 연말 김장김치나눔행사, 사랑의 바자회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나눔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임실군, 화재사고 행정능력 주목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발빠르게 대처한 임실군의 행정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17일 새벽 3시33분께 임실읍 갈마리에 위치한 임순여객(주) 차고지에서 불이나 주차되어 있던 버스 6대가 불에 탔다.

두대가 전소되고 세대가 반소됐으며 한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은 큰 화재였다.

평소 군민의 주요교통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사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 군은 사고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해당 부서 담당자를 긴급 소집했다.

사고현황 파악부터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으며 특별교통대책으로 화재 버스를 대신해 전세버스 6대를 긴급 투입했다.

특히 한성철 지역경제과장과 교통행정팀원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상황실'을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해 교통상황을 예의주시 하며 애로사항 신속처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임실=진종영 기자

김제시 공무원 인사제도 '부정적'

노조 설문조사 결과... 내 외부 청탁·상급자와의 관계가 승진·전보인사 좌우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남기)이 17일 발표한 김제시 인사제도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김제시 공무원들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내부 시스템으로 실시하였다.

김제시 공무원들은 승진이나 전보인사에 있어서 내·외부의 청탁과 상급자와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답하였으며 반면 승진인사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에는 개인의 업무능력과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꼽았다.

김제시 인사 정책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6%만이 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인사 정책이 공무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상호간의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매우 우려되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노동조합은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7월 4일 노사 간담회시 시장에 개 전달, 예측 가능한 인사에 대한 공서 감대를 형성 하반기 인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으나 그 결과를 이번에도

원칙과 상식은 없고 반칙과 특권만 통한 최악의 인사였다는 평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번 인사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공정한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 위원장과 임원들이 1인 항의 시위를 가졌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해당업무 전문성"은 겨우 26%에 불과하고 응답자 6%만이 인사정책에 만족을 보였으며 경제교통과,환경과,농업정책과가 기피부서로 행정지원과,기획감사실,세정과가 선호부서 1,2,3로 나타났으며 선호부서와 기피부서 차이는 빠른순진 여부로 나타났다. /김제=곽노태 기자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우정공주식회사가 완주군 1111사회소통기금에 500만원을 전달했다.

정우정공주식회사, 완주에 500만원 전달

군, 1111사회소통기금... 현재까지 3억원 모금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기부가 7월에도 계속되고 있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우정공주식회사(이관우 회장)가 완주군 1111사회소통기금에 500만원을 전달했다.

완주 과학산업단지에 소재한 정우정공주식회사는 1974년 정우공업사로 출발해 탱크로리 및 버클로리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작하고 있다. 이 사업을 근간으로 사업을 확대, 탱크로리 등 특장차를 제작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에 납품하고 있다.

이번 기부를 포함 1111 사회소통기금은 현재까지 3억 원을 모금했으며, 공무원, 주민과 기업 등 1,000여 명이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화장품, 유아용품, 이불, 고기 등 현물배분과 자활센터와 함께 하는 나눔 냉장고 사업을 시작하였고, 정각

장애진단 의료비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중이다.

한편, 1111사회소통기금은 완주군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복지·환경·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금융 제도로 100원, 1000원, 10,000원 또는 소득의 1%를 기부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군민 모금운동이다.

지난해 4월 완주군과 (재)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가 협약을 체결해 출범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꿈꾸는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개최

완주와일드푸드축제서... 내달 31일까지 신청

완주와일드푸드축제에서 청소년들의 트로트 경연이 펼쳐진다.

17일 완주군은 9월 22일부터 24일간 열리는 와일드푸드축제 기간 중 둘째 날인 23일 축제장 특설무대에서 2017 꿈꾸는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완주군과 와일드푸드축제 추진 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하는 이번 트로트 가요제는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올해 6회차를 맞이한 트로트 가요제는 와일드푸드축제장에서 매년 진행돼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가요제 참가신청은 내달 31일까지이며, 참가 대상은 초·중·고·대학생(만19세~24세)으로 개인 및 동아리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www.wanjuyvc.or.kr)에서 간단한 응모 서식을 다운 받은 후 이메일(wanjuyvc@hanmail.net) 접수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9월 9일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3층 다목적홀에서 예선을 치른 뒤, 최종 본선 진출자를 가리게 된다.

대상 1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최우수상 1팀(전라북도지사상), 우수상 2팀(완주군수상), 인기상 2팀을 시상하게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랑장학재단, 지평선학당 하반기 개강식 가져

김제시랑장학재단(이사장 이진식)에서는 17일 오후 7시 30분 김제 지평선학당 다목적실에서 지난 6월17일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관내 우수 중등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17년도 지평선학당 하반기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지평선학당 수강생 150여명과 지평선학당 관계자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일정,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계획, 특성화 프로그램 안내 등 하반기 학사일정에 관한 설명과 함께 학년별·강사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지평선학당에서는 매주 월~목, 주 4회에 걸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과목에 대해 중등부 2, 3학년, 고등부 전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집중교육을 통한 수강생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올해는 교과목 부분에서 새롭게 시작한 수학 집중클리닉 수업과 교과목의 부분에서 컨설팅 전문강사인 책임부원장제를 도입하여 여러 명의 컨설턴트와 연계, 최근 학생종합전형 강화 인시경향에 맞춘 자기소개서, 논술면접프로그램 등을 대비하는 체계적인 학생맞춤형 진로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2014년 지평선학당 졸업생인 이강건(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3학년)을 초대해 수강생을 대상으로 지평선학당에서 생활한 5년이 대학진학에 어떤 도움이 되었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멘토링을 실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수료

김제시보건소에서는 치매 고위험군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2017년 6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15회)을 실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치매인지재활은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인지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남력 훈련 및 신체리듬 활동, 두뇌활동 등을 통한 교육으로 치매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웃음치료 및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 즐겁고 신나는 신체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맞춤형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김제시보건소에서는 60세이상 관내 거주 어르신들에게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지저하로 나온 분에게는 협약 병?원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무회하고 있으며, 치매진단 시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차료비(3만원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정기적인 조기검진 및 신체활동, 인지능력향상과 건강관리, 치매예방교육 및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만들기예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학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